

##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김윤주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복합성과의 관계를 상관연구를 통해 알아 보았다. 우선 자기애적 성격에 대해 성격장애로만 보려는 이론위주의 병리적 견해보다는 일반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상적인 성격특성이라는 관점(Lasch, 1979; Millon, 1981; Emmons, 1987)에서 바라보았으며, 개인의 인지된 자기모습의 다양성을 분리된 자기(split self)라는 병리적인 개념이 아닌 Linville이 제시한 자기복합성이라는 자기개념에 대한 다양성과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의 긍정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 두 개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34, p < .001$ ). 이 사실은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개인일수록 자신의 사회적역할이나 대인관계, 성격특성, 행동, 선호성 등에 있어 자기의 모습을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인지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addi가 제시한 성격심리학의 충족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일반적 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최근들어 여러 학문분야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왔다. 이런 추세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애(narcissism)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하였다(Lasch, 1979).

그러나, 사실상 자기애적 성격특성(narcissistic personality)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나 자기애적인 성격장애를 지닌 개인을 선별하여 치료하려는 임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로 이론적 접근에서 이루어졌을 뿐,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타당성있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였다(Emmons,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을 사회문화적 측면이 아닌 개인의 측면에서, 병리적 성격장애가 아닌 정상인의 성격특성으로 가정하여, 그런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자신(self)에 대해서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이론과 연구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에 의하면, 자기애적 성격장애란 첫째, 자신의 중요성과 독특함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갖고 성취성과 만능을 과시하려하며, 둘째, 무제한의 성공, 권력, 훌륭한, 미모, 이상적 사랑등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셋째, 끊임없는 주의와 선망을 요구하고(노출증, exhibitionism), 네째, 비난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 또는 분노, 열등감, 수치감, 공허감 등의 강렬한 반응표출과 타인이나 패배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며, 다섯째, 대인관계에서도 최소한 다음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데, ① 값을 생각도 없이 특별대우를 기대하고(표제성, entitlement), ②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지니며(이용성, exploitiveness), ③ 지나친 이상화와 지나친 과소평가의 극단적인 대인관계양상을 보이고,

④ 공감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느낌을 잘 모르는 등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Freud(1931)는 자기애적 성격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처하려하며, 활동성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애정을 주고 지지해 주려하며, 리더의 역할을 맡을 경우, 기존의 상태를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여 집단문화 발전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성격이라고 언급하면서, 자기애적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하였다.

자기애적 성격 특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정신분석 학파의 입장(Freud, 1914, 1931; Kernberg, 1976; Kohut, 1976; Millon, 1981, 1985), 사회문화론적인 입장(Fromm, 1973; Nelson, 1977; Kanfer, 1979; Lasch, 1979; Stern, 1980; Mazlish, 1982; Wallach & Wallach, 1983; Fichten, 1984), 사회심리학적 입장(Snyder, Stephan & Rosenfield, 1978; Greenbald, 1980; Harvey & Weary, 198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견해이다. 먼저, Freud는 자기애적 성격 유형(narcissistic character type)이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스스로에 대해 직접적이고 주된 관심을 보이며, 따라서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성격 유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이후, Kernberg(1976, 1980)와 Kohut(1976)는 「부모의 자녀 무시가설(parental devaluation hypothesis)」을 근거로 초기 아동기시절에, 냉정한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과 양육포기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만 신뢰감이 주어지게 되어,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illon(1981, 1985)은 「부모의 자녀 과잉보호가설(parental overvaluation hypothesis)」을 제안하여 아동기초기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애정을 쏟아, 그런 부모가 주는 비현실적인 강화에 의해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 대해, Masterson(1985)은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의 형성에 있어, 부모의 자녀중심적인 양육 태도 및 긴밀한 혈연 관계로 인해, 자녀무시가설보다

는, 자녀과잉보호가설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둘째, 서양문화권에 비해 보다 더욱 권위적이며, 집단적인 동양문 화권내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이 부모의 엄한 가정 및 사회화 교육에 의해 주어져지는 수치감(shamefulness)으로 인해 억압된 상태로 남았다고 보았다.

자기애적 성향에 대한 두번째 접근은 사회문화론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자기애적 성향을 개인적 성격특성으로 보다는 집단 사회적인 실체(narcissism as a social entity)로 간주하고 연구하였다. 이런 사회문화론적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Lasch(1979), Kanfer(1979), Wallach & Wallach(1983), Fromm(197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자기애적 성격이라는 임상적 개념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자기애적 성격이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문화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지는 지를 알아보고 하였다. Fromm(1973)은 개인이 자신의 자기애적 열망(narcissistic cravings)을 표출시키기위해 정치적, 종교적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일시하려 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성향으로 인해 남녀차별, 인종차별, 자민족 우월주의 등의 집단편견적인 사회문화적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Kanfer(1979)는 현대사회가 점차 자기추구적(self-seeking)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공동사회목표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세번째는 사회심리학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주로 자기기여적 편견(self serving bias)과 이기주의(selfism)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Snyder, Stephan과 Rosenfield(1978), Greenbald(1980), 그리고, Harvey와 Weary(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기기여적 편견(self serving bias)과 이기주의적 태도(selfism)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Mazlish(1982)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단지 하나의 임상병리적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화와 같은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Millon(1981)은 앞으로는 정신분석적 접근이나 사회문화적 접근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애적 성격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방향의 연구를 위해 Raskin과 Hall(1979)은 DSM-III(APA, 1980)에 있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준거에 따라 자기애적 성격특성검사(NPI;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Lasch(1979)와 Fisher(1984)는 비록 이 검사자 DSM-III(APA, 1980)의 준거를 근거로 제작되어지기는 하였으나, “자기애적 성격은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는 성격”이라고 보았고, NPI는 단지 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애를 자기보고 식의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도구라고 하였다.

### 자기복합성개념

Linville(1982, 1985, 1987)은 감정(affect)이나 자기평가(self appraisal)의 변화에 있어서 자기(self)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복합성(self-complexity)이란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런 자기복합성(self-complexity)이란 과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다양하고(number of aspects), 분별력있게(distinctiveness among aspects) 인지적으로 표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기복합성이 높은 개인이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때 보다 넓은 범주들(성격특성, 대인관계, 용모, 기호성등)에서 자신을 다양하게 표상하고 있고, 동시에 범주간에 서로 뚜렷한 구분을 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자기복합성이 낮은 개인이란 보다 좁은 범주에서 범주간의 구분도 별로 하지않은 채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표상하고 있는 개인을 뜻한다.

Linville(1985)는 자기복합성 모델에 대한 네가지 기본 가정을 세웠다.

첫째, 한 개인의 자기(self)는 다양한 자기(self)의 여러모습들을 인지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둘째, 이렇게 표상되어진 자기의 여러모습들은 제각기 정서적 속성(affect)과 관련되어져 있다(예; 우유부단함-부적, 성실함-정적).

셋째, 각 개인들의 자기표상의 복합성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각 개인의 자기복합성에 대한 정도나 수준의 차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한데, Linville은 이런 준거를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표상하고있는 자기의 여러가지 모습들의 수(number of aspects)와 이렇게 표상된 여러 자기모습간의 구분성(distinctiveness among the aspects)이라고 보았다.

넷째, 한 개인이 보일 수 있는 전체적인 감정이나 자

기평가는 그것들과 관련된 자기의 여러 모습들과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결국, 자기복합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융통성있고 다양하게 인지하며 그렇게 인지된 각각의 역할이나 성격특성 등이 각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별되어 얼마나 적응을 촉진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개념(self-concept) 혹은 자기지식(self-knowledge)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간의 관련성

먼저 Emmons(1984)는 자기애 성격검사(NPI)와 Soares & Soares(1965)의 자기지각검사(self perception inventory)의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ubscale)를 이용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연구를 한 결과, 자기존중감은 NPI의 4개 하위척도 중 이용성/표제성 척도(exploitativeness/entitlement subscale) ( $r = -.02$ )를 제외한 다른 세가지 척도와 높고 의미있는 정적상관(L/A, .53; S/S, .41; S/A, .38), ( $p < .01$ )을 얻었고, 전체 NPI 점수와 자기존중감 점수 사이에서도 .56( $p < .01$ )의 상관을 얻었다. 결국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복합성과 자기존중감(self respect)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Campbell, 1990)를 살펴보면, Campbell은 우선 Linville의 자기복합성의 개념을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자기존중감과 자기복합성에 대한 상관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이 자기개념 중 자기복합성-인지적 유연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Campbell, Chew, Scratchley(in press)는 자기복합성 점수와 자기존중감 검사점수와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r = .32$ 의 정적상관을 얻었다.

위의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두가지 연구 사실을 토대로 볼 때 NPI로 측정된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복합성의 상관이 정적일 수 있다고 유추해낼 수 있다.

다음으로 Baumgardener(1990)는 자기복합성을, 자기개념 중 특히 자기지식(self knowledge)의 개념의 하나로 보았다. 그런데, Baumgardener의 자기존중감(self-esteem)과 자기지식(self-knowledge)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자기지식의 확실성(self-certainty)이, 단기적으로는 자기애정(self

-affect), 장기적으로는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높은 자기복합성은 자기에정과 자기존중감을 높일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Brockner(1988), Rosenberg(1965)와 Wylie(1974, 1979)는 자기존중감이 자기지식의 확실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한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hallmark)'는 바로 자기지식이라고 하였다.

위의 자기지식의 확실성과 관련된 두가지 연구사실을 살펴볼 때, 자기복합성과 자기에적 성격 그리고 자기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기에적 성격을 지닌 개인은 자기에정이 높을 것이고(DSM-III-R, 1987), 높은 자기에정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아질 것이고(Baumgardener, 1990), 이렇게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지식의 하나인 자기복합성이 높을 것임(Brockner, 1988; Rosenberg, 1965; Wylie, 1974, 1979)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위와는 역방향으로 자기에적 성격과 자기복합성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자기지식의 일부인 자기복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Baumgardener, 1990),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정이 높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결국 자기복합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에정 또한 높게 나타나, 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에를 재는 NPI 점수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연구결과와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복합성간에 정적상관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다음으로, Raskin과 Hall(1981), Emmons(1981, 1984), Waston(1984) 등은 NPI 검사중, 이용성/표제성 척도(E/E)는 정상적인 자기에적 성격에서 병리적인 자기에적 성격장태를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비록 그 사실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변별력을 전제로 할 때 NPI 하위척도인 지도성/권위성(L/A), 우월성/당당함(S/A), 자기물두/자기선망(S/A)는 자기복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나, 이용성/표제성 척도(E/E)는 자기복합성과 상관이 없거나 낮은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복합성 사이에는 정적

인 상관이 존재할 것이고, 자기에적 성격검사(NPI)중에서, 이용성/표제성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하위척도만이, 자기복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자

모두 228명의 남녀대학생이 응답자로 참여하였다. 이 중 자기복합성결과가 없는 4개 자료를 제외한 총 224개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 검사도구

#### 1) 자기에적 성격 검사지(NPI :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과 Hall에 의해 정상적인 성격 특성으로서의 자기에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강제선택형(forced-choice)의 이분법적(dichotomous) 검사도구로서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1984년, 1987년 Emmons의 두 차례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 값이 .35이상을 얻은 문항으로 구성된 37문항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 2) 자기복합성 측정도구(self-complexity measurement)

자기복합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inville이 그의 연구(1980, 1982, 1985, 1987)에서 사용한 성격특성 분류기법(trait sort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 성격특성 분류기법에서 사용되어질 성격특성 형용사를 알아보기 위해 Linville(1985, 1987)이 그의 연구에서 쓴 방식대로, 사전조사를 통해 15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모두 기술하도록 하여, 가장 사용빈도수가 높은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구하였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33개의 형용사를 자기복합성 측정의 성격특성 형용사로 사용하였다(표 1 참조).

결국 <표 1>의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가지고, Linville이 사용했던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이용하여 자기복합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보여 주고, 자기자신 스스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예, 친구를 만날 때)이나 자신의 여러 모습의 측면들(예, 장점, 단점)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표 1> 33개의 성격특성형용사

성 격 특 성 형 용 사				
고집이 세다	경솔하다	경쟁적이다	나태하다	냉정하다
느긋하다	다정하다	도전적이다	독단적이다	말이 적다
반항적이다	변덕스럽다	보수적이다	불안하다	사교적이다
사색적이다	상냥하다	성급하다	성실하다	세심하다
순종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익살스럽다	자신감있다	정열적이다
진지하다	차분하다	책임감있다	체계적이다	충동적이다
치밀하다	쾌활하다	편안하다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된 자신의 각각의 상황이나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성격을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이용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한 피험자의 반응의 예를 들면 다음 <표 2>와 같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성격분류 기법에 의한 각 피험자의 반응기록을 토대로, Linville의 연구에서 사용된 Scott의 H 통계치(H statistic, Scott, 1969; Scott et al., 1979)를 이용하여 자기복합성 점수를 구하였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SC(H) = \log_2 n - (\sum n_i \log_2 n_i) / n^{11}$$

## 결 과

먼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NP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여 본 결과,  $r = .89 (p < .001)$ 를 얻었다. 다음으로, 전체검사와 4개의 각

<표 2> 자기 성격특성 분류의 예

자신을 표현하는 상황이나 모습의 측면들	친구 만날때	공부할 때	나의 단점
성격특성	익살스럽다	진지하다	나태하다
형용사의 분류	다정하다	체계적이다	우유부단하다

하위척도(S/S, S/A, L/A, E/E), 그리고, 각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값(Cronbach's  $\alpha$ )을 구하여 본 결과, 각각 .82, .60, .60, .63, .57을 얻었다. 이 결과는 Nunally(1978)에 의하면, 만족스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체 검사점수와 각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값인 .82로 높았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상관연구결과,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 사이에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결국 자기애적 성격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하게 하려고 하며, 그런 여러 자신들 간에는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건강한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보여주는 지도성/권위성, 자기물두/자기선망, 우월감/당당함의 세개의 하위척도는 자기복합성점수와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Freud(1931)의 말대로 자기애적 성격이 병리적인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요소에 독립적으로 대처하려는 자기물두, 당당함과 리더의 역할을 맡을 경우의 강한 추진력을 보인

1) H공식에서 n은 성격특성 형용사의 총 갯수(여기서는 33개): 그리고  $n_i$ 는 특정 집단조합에 나타난 형용사의 수이며,  $n = \sum n_i$ 이다. 여기서 집단조합이란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집단 1과 집단 2에 속하지만, 다른 집단에 속하지 않는 형용사가 있다고 하자. 이 형용사는 집단조합 1-2에 속하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만약 한 개인이 두 개의 형용사 집단을 구성했다면, 한 개의 특정 형용사는 4가지 가능한 집단조합들 중(집단 1, 집단 2, 집단 1-2, 앞의 세 집단에 속하지않는 조합) 하나의 집단조합에 포함될 것이다. 이 예에서 위 공식에  $n_i$ 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데,

$n_1$ =집단 1에만 속하는 성격특성형용사의 갯수  
 $n_2$ =집단 2에만 속하는 성격특성형용사의 갯수  
 $n_3$ =집단 1과 집단 2에 동시에 속하는 성격특성형용사의 갯수  
 $n_4$ =위의 세가지 집단중 어디에도 속하지않는 성격특성형용사의 갯수  
 이렇게 위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자기복합성의 개별측정치를 구하였다.

<표 3> 자기애적 성격검사와 자기복합성과의 상관

	자기애적 성격 검사점수(NPI)				
	전체점수	L/A	S/S	S/A	E/E
자기복합성(SC)	.34***	.32***	.26***	.22***	.23***

(\*\*\* : p<.001)

(L/A, 지도성과 권위성 ; S/S, 자기물두와 자기선망 ; S/A, 우월성과 당당함 ; E/E, 이용성과 표제성)

다는 지도성, 우월감, 권위성같은 그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자기애적 성격자로 하여금 높은 자기존중감과 자기복합성을 갖게 하여, 자신이나 외부세계에 대해 보다 융통성있고, 분별력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병리적인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된 이용성/표제성척도(exploitivity/entitlement)는, 자기복합성과 무상관이거나 낮은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복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결과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기복합성 정도가 높았다. 이런 사실은 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앞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된 자기애정(self-affect), 자기 존중감(self-esteem)과 자기확실성(self-certainty)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이 연구가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ernberg(1980)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자기존중감은 피상적인 자기확신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사실로 볼 때, 과연 자기애적 개인이, Kernberg의 주장대로, 단지 피상적인 자기확신의 표현으로 자기복합성정도를 높게 보이려고 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히 알아 보기 위해서는 TAT검사나 Rorschach검사와 같은 투사법검사를 NPI와 함께 사용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두번째로, Emmons(1987)가 NPI검사를 가지고 자기애적 성격과 정서적 극단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자기애적 성격의 개인이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extremity), 혹은 유동(fluctuation)이 크다는 사실

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자기애적 개인의 정서적 극단성과 낮은 자기복합성을 지닌 개인의 정서적 극단성에서의 유사점을 언급하면서,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 간에 부적상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Emmons의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두 개념 간의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개인은 자기복합성이 일상생활에서는 높으나, 갑작스런 부정적 정서유발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자기복합성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적,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기애적 성격자의 자기복합성정도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볼만하다.

세번째로, Linville에 따르면 자기복합성이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며, 스트레스 대처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런데, 만일 한 개인이 자기의 여러 모습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성격특성행용사만을 다양하게 구분지어 사용하였다면, 과연 이런 개인도 Linville의 가정처럼 정서적인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대처능력이 높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려해볼만하다.

네번째로, 사회학의 역할이론(role theory)에서는 역할갈등(role conflict)이란 개념이 있다(이장현, 1985). 역할갈등이란, 한 개인에 있어 2개 이상의 역할이 어떤 상황에서 서로 상치되어, 역할선택에 대한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런 갈등상태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정한 자신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수직적 위계(vertical hierachy)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Baumgardener(1990)는 자기복합성과 같은 자기지식의 확실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 성격, 행동특성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 선호성, 자신의 능력에 따른 뚜렷한 수직적 위계를 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

기모습의 다양성(umerousness)과 분별성(distinctiveness)같은 자기표상(the representation of the self)의 수평성(horizontal dimension)만을 강조한 자기복합성개념에 수직적인 자기표상을 함께 고려하면 자기복합성개념이 스트레스대처에 보다 유용한 개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번째로, Maddi(1965)와 Cross 등(1967)은 창조적인 예술가의 여러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그들이 사회현실적 요구속에 수동적으로 인주하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며, 결과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질(quality)과 의미(meaning)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초월적인 성향(transcendancy)과 주장성(assertiveness or dominance), 자기만족성(self sufficiency), 정서적 유동성(emotional instability) 등의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Raskin과 Hall(198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과 창조력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창조성 혹은 독창성을 지닌 개인이나 예술가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Maddi가 수립한 성격심리학의 연구모델을 통해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Maddi(1985)는 성격심리학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갈등모형(conflict model)과 충족모형(fulfillment model)으로 나누었다. 먼저 갈등모형에서는 인간과 사회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개인이 수동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여,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지닌다. 그래서, 성숙된 성격이란 의존성, 관대성, 성실성,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존경심, 꾸준한 생산성, 정서의 안정성을 지닌 성격을 말한다. 따라서, 미성숙된 인격이란 충동성, 반항성,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불경심, 예측불가능한 감정과 행동을 하는 성격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의 성격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두 개의 양극을 이루는 거대한 힘들간의 제속적인 충돌과 갈등속에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 입장은 인간성격에 대한 결정론적인 견해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정신병리적 개념을 강조하는 인과론적 견해를 지닌다. 그 이론의 예로는 Maddi는 Freud,

Jung, Murray 등의 성격심리학이론을 들고 있다.

이와는 극히 대조적인 견해를 지닌 입장이 충족모형이다. 이 입장은 갈등모형이 성숙된 인격으로 강조한, 타인과 사회지향성을 통한 현실적인 자기유지가 오히려 미성숙된 성격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숙된 인격이란 타인이나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비록 다소 충동적이거나 예측불가능하긴하나, 자신의 삶의 가치나 의미에 근거하여 보다 실존적으로 자신이나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추구하려는 자기의존적인(self-dependent)성격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입장을의 성격이론들은 인간에게는 단지 한 가지의 거대한 힘이 있으며, 인간은 그의 일생을 통해 그 힘을 보다 발전적으로 발현시키려하고 있다고 보며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갈등모형에서처럼 필연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입장은 개인의 잠재력실현, 삶의 의미, 우월해지려는 욕구, 이상적인 삶의 목표추구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자유론적, 목적론적(teleological) 견해를 지닌다. 이런 이론의 예로는 Adler, Fromm의 이론과 Rogers, Maslow계열의 실존주의적 심리학이론들을 들 수 있다.

위의 두 모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모형의 관점에서만 보면 자기애적 성격을 단지 미성숙된 성격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충족모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기애적 성격이, 개인주의화되는 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이고, 성숙한 인격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새롭게 제시해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Emmons, Raskin과 Hall(1979, 1987)의 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애개념과 부가적으로 Maddi(1985)의 충족모형적인관점에 토대를 두고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사이에 정적상관이라는 결과는 개인이 자기애적 성격과 같은 초월적인 성격을 지닐과 동시에 자기복합성과 같은 적응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참 고 문 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R*. Washington, DC:

- Author.
- Baumgarde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ampbell, J. D., Chew, B., & Scrathley, L. S. (in pres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 Emmons, R. A. (1981).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247-250.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reud, S. (1931). *Libidinal types*. London: Hogarth Press.
- Fromm, E. (1973).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anfer, F. H. (1979). Personal control, social control, and altruism. *American Psychologist*, 34, 231-239.
- Kernberg, O. (1976).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rnberg, O. (1980). *Internal world and external reality*.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6).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inville, P. W. (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Linville, P. W., & Jones, E. E. (1980). Polarized appraisals of out 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89-703.
- Maddi, S. R. (1980).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U.S.: The Dorsey Press.
- Masterson, J. F. (1981).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disorders*. New York: Brunner/Mazel.
- Masterson, J. F. (1985). *The Real Self*. New York: Brunner/Mazel.
- Millon, T. (1981). *Disorder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Millon, T., & Everly, G. S. (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ew York: John Willey & Sons.
- Raskin, R. N. (1980). Narcissism and creativity: Are they related? *Psychological Reports*, 46, 55-60.
- Raskin, R. N.,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Scott, W. A. (1969). Structure of natur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261-278.



##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 Complexity**

**Yun-Choo Kim and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 complexity. Specifically, I was interested in how narcissistic person represents one's own numerous self aspects and discriminate them. The basic hypothesis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more narcissistic the man is, the more self complexity he has. For this research, 228 students were participated and, I used two survey methods to validify the hypotheses : one was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for narcissism, the other Trait Sort Technique for self complexity.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lf complexity was meaningful and positive ( $r = .34, p < .001$ ), and the hypothesis was validified. That is to say, the man who is more narcissistic would have more self aspects in roles, traits, physical features, behaviors, relationships, and each aspect is more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 think the researches on validity of the two survey methods are not only needed, but, in relation to narcissism and self complexity, the consideration to the affect-extemity, self concepts, and artist's personality should be given.